

보도시점 2024. 5. 21. (화) 09:30 배포 2024. 5. 21.(화) 08:30

## 지자체와 '25년 예산안 편성 방향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5.21일 화요일부터 5.22일 수요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들과 1:1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09년 이후 매년 개최

김동일 예산실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금년중, 각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부처·전문가·일반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다이브(DIVE)를 10여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일자리·지역대학 혁신(부산), 에너지 스타트업(경기 성남), 스마트팜(충남 서산), R&D 혁신(대전), GTX-A(경기 동탄), K-방산(경남 창원, 경북 구미), 노인일자리(전주) 등

아울러,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24.3월 출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을 중점 발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함께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R&D, 의료·문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각 지자체들의 요구 사업들이 각 부처에 5월 31일까지 제출되면,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요 】

▶ **일시** : '24.5.21(화)~5.22(수)

- 5.21(화)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5.22(수)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참석자**

-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실 국·과장 등
- (지자체) 시·도 부단체장, 사업 담당자 등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관리과	책임자	과장 박환조 (044-215-7190)
		담당자	사무관 임유민 (imyounin@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